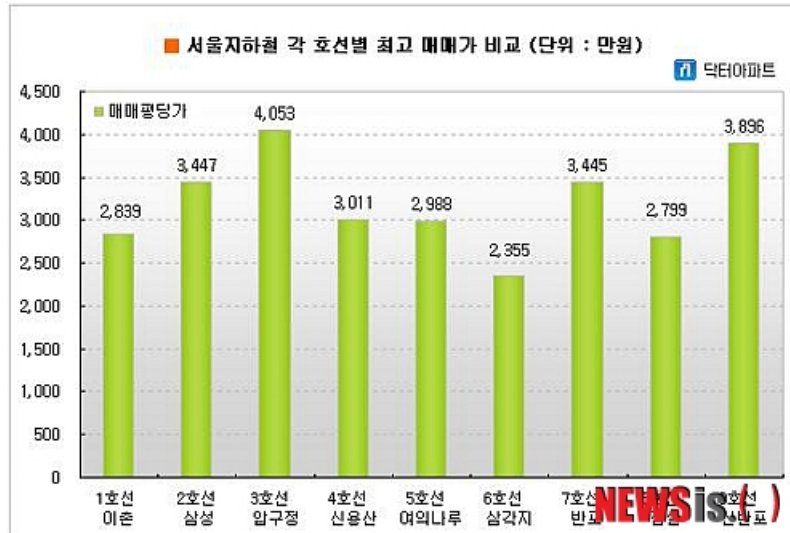


## 아파트값 가장 비싼 지하철 역세권은 '압구정'

등록 2011.11.15 08:52:31 | 수정 2016.12.27 23:02:33



압구정 주변 3.3㎡당 매매가 4053만원 전셋값은 신반포역...3.3㎡당 1889만원

【서울=뉴시스】김형섭 기자 = 서울 지하철 가운데 주변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압구정역인 것으로 조사됐다.

1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역세권 아파트값(재건축 제외)은 3호선 압구정역이 3.3㎡당 405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.

압구정역 주변으로 강남 학군과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 한강도 가까워 아파트 평균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이어 ▲신반포역(9호선) 3.3㎡당 3896만원 ▲도곡역(3호선) 3758만원 ▲사평역(9호선) 3545만원 ▲삼성역(2호선) 3447만원 순이었다.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당고개역(4호선)으로 3.3㎡당 882만원에 불과했다.

각 호선별로 3.3㎡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역은 ▲1호선 이촌역(2839만원) ▲2호선 삼성역(3447만원) ▲3호선 압구정역(4053만원) ▲4호선 신용산역(3011만원) ▲5호선 여의나루역(2988만원) ▲6호선 삼각지역(2355만원) ▲7호선 반포역(3445만원) ▲8호선 잠실역(2799만원) ▲9호선 신반포역(3896만원)이었다.

전셋값은 9호선 신반포역이 3.3㎡당 188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이 일대는 학군, 편의시설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래미안퍼스티지, 반포힐스테이트 등 고가의 새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평균 전셋값도 높았다.

이어 ▲사평역(9호선) 1789만원 ▲도곡역(3호선) 1730만원 ▲반포역(7호선) 1648만원 ▲신논현역(9호선) 1617만원 등의 순으로 3.3㎡당 전셋값이 높았다. 가장 전셋값이 낮은 곳은 6호선 새절역으로 3.3㎡당 442만원이었다.

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"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역들의 아파트 값이 단연 높게 나타났다"며 "향후 개통예정인 분

당선 및 신분당선 연장선, 9호선 2~3단계 공사에 따라 순위에 다소 변동이 예상된다"고 말했다.

[ephites@newsis.com](mailto:ephites@newsis.com)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